

웃쳐도 할수업소리니 생각하라 전도인이 날
이점으는거슬보고 당직이로더브리작별하
고가니라

묘축문답권지상종

묘축문답

십말

묘축문답하전

잇흔날전도인이다시신당에프러가니당직
이영접하여인스름못촌후에세상니야기를
하더니전도인이왈우리가어제세상사람의
보살섬기느거시좁도가아님을말하엿더니
싱각하야보견티좁도니잇가당직이글호
티그티말이보살이거죽거시라좁을내가아
니밋느거시하나라다만할가지의심히잇스
니사름의전하느말이신안고울적만이라하
는씨에현후마노라가잇서미우령험하야미
양기룩함을나라내며빅성을구원하느지라

간혹리가 그곳을 저알적에 도희 돈을 스르고
종을 울리며 처형하던 누구던지 덩녕적수와
스망이 잇다 하니 보살이 만약 거짓거실진티
엇지 이러할령험이 잇는뇨 천도인이 곧 오티
무수한 허량적이 흥상적만디 정에서 비성의
비를 겁측하고 적물씩아 숨을 심각지 못하는
다그마노라가 진실노령험이 잇스면 엇지이
린세에 신묘한 징조를 때프러그 비성을 구제
치안노고 그 목전에 잇는 환란을 구제치 못하
거든 흥들며 바다 빛과 비성도 해주기 될 엇지
보라 리요 또 환적만련 후 쇠치 성하니 환사름

묘축문삼

십삼구

도죄물을 엇는이가 단코적만련 후 쇠치 성한
자도 환란을 만히 만나니 그 보응함이 엇지이
又 처령험이 업는노 때 더련 후는 신과 성인이
아니나 다만 죽은 사름이니 더의 죽음을 면치
못하거든 엇지 사름의 죽는거 살구하며 대가
성전에 더의 몸을 보전치 못하거든 엇지 스 후
에 만민을 보전하리요 세상에 흥망 성쇠와 길
흉화복이 모두 상대의 지극히 공법되고 스정
이 업스신 상벌이니 진실노련 후 자행치 못할
바이니라 당적이 올련 후는 황태의 책지로 봉
흥심을 밧아 보살이 되 엇는나다

전도인이 활련후가 임의 황대의 칙봉호심을
밧았시면엇지 황대의 락하를 보호호야나라
이대평호며 비성이 편안케 못호는 노실 노은
례를 비반호요 덕을 니 접이 오도 관칙지를 노
려 베풀을 봉호는 이는 덩녕 봉함을 밧는 이 보
다 더 높을 기시니 황대가 칙봉함을 밧아 보살
이 되엇다 활련이 면 황대가 권능으로 능히 비
성의 명이 길고 자른 것과 가난호고 부흥과 중
호고 달함을 뜻티로 못호거 불호물며 황대 쇠
봉함을 밧은 보살이 엇지 회복을 뜻티로 호려
요 겁히 생각호야 보시오 당직이 활이 말파
又

모충문답

이십

활련티련후보살도 거 좃기 시로 다 전도인이
알파연그러호니라 당직이 활상에도 섬기고
보살도 섬기면엇더호노골으티올치하니호
나라 세상사롭이 상대를 비반호고 우상을 섬
기는 거서 조과인 군을 비반호고 도적나라를
섬기는 것과 조흔지라 이제 우상을 버리고 상
대를 공경호면 이는 반호는 도적을 버리고 구
주를 좃는 모양이니 활 비성이 엇지 두 인 군을
섬기리요 때 더 좃도 화거 좃도가 서로 조지하
니 호야 여거서 나오매 더리로 드리가고 이리
로 드리오매 더거서 나오느니라

당직이 곧은 티진실노이와 갓흐면나도상대
를섬기고저흐노라전도인이왈상대를섬기
라흐면반드시몬져에수씨를밧느니대다상
대죄셔착훈기슬스랑흐시고악훈기슬위위
흐샤죄인으로도더브러서로통호지하니시는
고로죄인이감히상대죄갓가이지못호는
니비유컨티나라법을범한신하가감히넘금
죄드러가죄음지못함과갓훈지라세상사름
이다상대죄죄를엇이죄가중간에담을싸하
시로통할수가업스메구쥬씨수죄셔만민의
중간보인이되샤보비피를홀녀사름의죄를

구속호시고막힌담을통호야만민으로호여
곰상대죄화친호게호시고상대를섬기게호
섯느니라

당직이왈에수는엇더훈사름인고곧은티상
대의아들넘이서니라당직이곧은티엇지호
야에수이라호는요곧은티에수라흠은셔양
본국말이니진셔글조로쓰고조선말노부르
면야소이니본리인간을구원호시는인군이
라진셔글조로번역호면곳구세쥬이니하늘
을씨나씨에느려오샤인간을구원호신고로
에수이라닐곳느니라

당직이알예수가상대의아들이면하는님도
아들이잇는냐전도자ㅣ알예수는상대로더
브리몸도요성품도요권능도요초사상
대죄로조차나신고로상대의아들이라닐
니이느인간의아비와아들이서로하는말
을빌어사름으로하여곰상대죄로조차오신
꿈을알게함심이니라당직이알예수ㅣ엇더
할사름을구원하는요골으티성정에닐너스
되모든세상사름이상대죄를스스로항복
할다함엇스니하늘파셔이혈닌뒤로브러마
즈막날에니르도록만국사름이런조로빅성
묘축관답

이집이

사자상대압희셔는모도다죄가잇는지라구
쥬에수씩셔하늘노조차인간에는려오샤련
하죄인을구원하시느니라당직이알세상사
름중에죄업는사름이업스리요골으티성정
에닐너스되죄업는자ㅣ업다함엇스니인간
사름들이날마다상대의은혜를닛져버리고
집계를범하여상대가죄함신아바지신줄을
모르고스랑치아니함며상대가큰전능함신
쥬지신줄을모르고공정치아니함니그죄엇
지죄다함리요예수ㅣ만일인간에는려오샤
죄를속량하고사름을구원하시지아니함섯

더면 사람이 스스로 몸을 구원하려 가엾스리
라 당직이 왈 넷말에 날 너스되 허물을 능히 곳
치면 착함이 그에게서 더 큼이 업다 하였스니 만
일 허물을 곳치고 착한디로 옴기면 죄가 업을
거시어 늘엇지 반드시 예수속죄함을 기드
리리요 전도인이 왈 허물을 곳치는 거슨 다만
전날의 지은 허물을 뉘우쳐 압혀오는 죄를 조
심할 뿐이요 전의 지은 죄는 능히 업시 하지 못
하느니라

당직이 왈 사람이 만일 덕을 닦고 선을 행하면
전일의 지은 죄악이 즘연 업서 질터이니 엇지

예수의 공로를 기드려 속죄할리요 전도인이
왈 성경서에 날 너스되 너의 계명하신디로 낫
치 행하여도 맛당히 스스로 날으기를 무익한
종이라 하였스니 이는 다만 더의 당연한
본분디로 행함이라 가령 한 사람이 일직도 직
질파 사람을 죽이기와 간음을 무수히 행하다가
나중에 회개하여 충성하며 효도하고 착한 사
람이 되었스니 눈압해 보는 거스로 말하면 나
라법을 범한 거슨 업스나 다만 조과의 맛당할
직분인고로 열쵸에 었던 사람이 사람의 전날
죄악을 법관의게 고하면 관원이 반드시 그 사

를을잡아법정에서형벌하야다스리대반드
시속을밧쳐야노일거시요속밧칠거시업스
면법티로형벌을다하리니상대씩셔사름의
죄를다스리심이이화又한지라대더사름이
상대와기르시느큰은혜를밧은즉상대의물
법을준행함이사름의본분이라기시본분일
진티행하는거시격식밧기착한일이아니요
임의격식밧기착한일이아니면엇지전날지
은죄악을씨셔브리리요사름이성전에착한
일만행하다가혹한범죄를지여도형벌을밧
올리이여문하물며사름이일심에착한일은
코추문남

부족하고악한일은유여하니조기죄를도망
하기어렵고런벌을면할수업는줄을란식할
세에한친구가티신하야가셔죄를담당하섯
시면이又한은혜와공덕을엇자감할소냐그
러하나상대의를법을밧하섯시면친구가능
히속할수업는니충신과효조도조기힘으로
씨님금과아비를속량하지못하고소랑하는
친구라도티신하야속하지못할거시여늘에
수—몸을브려세상죄인을구속하섯스니그
높으신공덕과근절히사랑하시는마음이한
량업는지라맛당이에수를밧고의탁하야죄

물과 향야 주시기를 보랄지니 만일 구주 예수
물의 락 향지 아니면 이는 비유컨터 어린으리
가 구덩이에 빠져 지매 붓드러 내여 주는 사람이
업슴과 같지라 능히 더의 힘으로 구원할수
가업느니 또 환반신불슈와 죽은시태가즈기
를 구원할수가 엇지잇스리요 무릇 인간사름
이 죄를 범함야 영원한디옥 형벌을 받는거시
구덩이에 빠져 진어린으리가 명이 조석에잇슴
又 또 고졸세상사름이즈기 착한공의를 밋어
상대 형벌을 면함야 라 흠이 구덩이에 빠져 진으리
가 더의 힘으로 능히 구원할출을 밋음과 같
호

며 보살과 우상울의 락 향여 상대의 형벌을 면
함야 향는 것도 구덩이에 빠져 진으리가 반신불
슈와 죽은사름의게 구원함기를 청함과 같
니라

당직이알예수는 무슴공덕으로 사름을 속함
야 피어면함게 함노 전도인이알예수는 하늘
노 보러 인간에느려오샤 사름이되샤 무수한
고성을 밋으시고 세상사름을 티신함야 십조
가에 보비피를 흘니샤 죄를 속함섯느니라 당
직이알예수 | 상대의아름이여늘엇지함야
허다함고성을 밋으섯느요 곧으티 사름이상

데 죄를 범할 때 맛당이 고성을 밧을 거시여
늘 상에 즘비 할 신은 덕으로 예수를 인간에 보
내야 고성을 터신 할야 밧게 할 것스니 라 당직
이 할 예수ㅣ 임의 허다 할고 초를 밧아 시면 엇
지 또 험집스가에 못 박혀 죽엇스니 고를 엇스
름이 상 데 죄를 범할 엇스니 맛당이 영원히
죽는 형벌을 밧을 거시여 늘 예수ㅣ 사람을 스
랑 할 시는 고로 즘 괴 몸을 버려 죽으샤 사람의
죄과를 터 속 할 것스니 그 은혜와 공 덕이 텃디
와 또 처 넓고 크신 지라 나와 자씨 도 예수의
공로를 밧지 아니 할 엇다 못 할 리라 당직이 할

예수ㅣ 죽으시매 무슴 공로를 그 터와 내가 밧
엇다 할스니 고를 엇디 예수ㅣ 십스가에 못 박혀
고성을 밧으샤 우리의 죄를 터신 할 심이니 라
당직이 할 내가 법을 범할 지 아니 할 엇스니 무
슴 죄가 잇다 할 리요 전도인이 할 당신이 비록
나라 법은 범치 아니 할 엇스나 반드시 상 데의
률 법은 범할 엇스리이다 고를 엇디 내 일심에 간
음과 도적질과 사름을 상 할고 물건을 해 할 거
시 업스즉 무슴 상 데의 른 법을 범할 엇스리요
전도인이 할 당신이 반드시 나라 법을 범함은
알려니와 상 데의 법을 범함은 세 뜻지 못 할 리

니 비유컨디 어두운 방에 서 방안 정결치 아니
함을 아지 못함과 같지라 예수 1 간에는 려
오자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사 사람의 죄악
을 회개하게 하시며 음도를 좃르쳐 보이심이
히가 어두운 집에 빛치음又如 사람의 죄악
음이 두온 것을 브리고 밝은 티로 나가게 하
심이니 당신이 불법을 삼혀 보면 당신의 마음
과 심각과 말씀과 형실이 상대의 불법을 범함
거슬 명백히 알나이다

당직히 알상대 불법이 무어시뇨 곧은 티 상대
를 법이 쉽게 가히스니 첫째는 상대 맞기 또다
요추문답

이십칠

른 상대가 잇다 하지 말나 하고 들제는 모든 우
상을 섬기지 말고 셋제는 상대의 돕흔 일을 함을
임의로 부르지 말고 넷제는 안식일을 직히라
하고 다섯제는 부모의 계효성하고 여섯제는
사람을 죽이지 말고 칠곱제는 음란하지 말고
여덟제는 사람을 죽이지 말고 아홉제는 망녕
되지 증거 말고 열제는 탐하지 말나 하였스니
이 열가지가 상대의 불법이니 조세히 심각하
야 보시오 할가지도 범함 죄가 업느릿가 당직
히 알내 심계를 온전하는 법이지 아니 하였노
라 전도인이 알성정에 날너스되 만일 훈법을

범행면십계를다범함이라하였스니함물며
우리세상사람의하는것과말과행실이하나
도상대의법을범하지아니하였시리오당직
이알엇지하여야그러하뇨전도인이알세상사
람의상대법을범하는거슬때강말씀함오리
이다세상사람이무음에악한심각을잡초하
님의부녀를욕심두고놈을투기하고위위함
며교만하고간사하며원슈잡기와놈을해함
고몸을러함게하며인척함고거짓확한태함
는거시다무음속으로상대의법을범한죄요
상대의일함을당닝되이닐크르며사람을속

이며뻬방하며욕하며헛말세하며음란한말
을함며거짓말하는거시어는무음으로상대
의법을범하는죄요잡술과외도를충상함야
붓쳐와우상을심기며죽은사람의신주와무
덤에절하며부모의제불효하며님군의계충
성치아니하며술과계집과잡기를도와함며
도적질하며싸움하며아편을끌고먹는거시
어는행함으로상대의법을범하는죄니라
당직이알이거시다상대의법을범하는거시
면우리는다죄잇는사람이어니와그대의말
이신주와무덤에절하는거시또한죄라함니

내의 생각은 그릿치 아니 하도다 공조의 말씀
이 살아서 는 레로 함 기고 죽어서 는 레로 장스
하 고 제 스 는 레로 함 라 함 섰 스 니 효도가 비 힘
외 웃음이 되 매 조 상 을 섬 기 는 거 시 효 의 레 절
이 어 늘 었 지 도 로 허 죄 라 함 는 노 전 도 인 이 왈
진 주 와 분 묘 에 절 함 는 거 시 진 실 노 불 효 가 되
는 지 라 큰 폐 단 인 니 가 지 헛 스 니 첫 제 는 의 스
업 는 일 이 요 들 제 는 무 의 환 일 이 요 섰 제 는 효
도 의 지 극 관 빙 거 가 업 고 넷 제 는 상 데 씩 죄 를
짓 는 거 시 라 내 당 신 을 위 함 여 시 힘 으 로 말 함
리 다 종 조 일 을 으 샤 티 부모 외 무덤 에 소 와 양

요 죽 문 답

이 십 구

을 잡 아 제 스 함 는 거 시 성 전 에 비 름 과 아 옥 으
로 봉 양 함 는 이 만 못 함 다 함 섰 스 니 이 뜻 술 분
명이 성 전 에 봉 양 할 거 시 오 스 후 에 제 스 할 거
시 아 니 라 곱 이 오 또 관 제 물 이 풍 비 함 야 도 부
모 가 환 가 지 도 흠 향 치 아 니 함 는 니 이 는 다 름
아 니 라 죽 은 사 름 은 세 상 량 식 을 먹 지 아 니 함
이 니 이 런 고 로 의 스 업 는 일 이 라 함 이 오 또 관
조 상 을 비 브 르 게 함 고 저 함 여 도 그 리 못 함 고
조 상 의 게 제 스 함 여 복 을 빌 고 저 함 여 도 그 리
못 함 고 또 진 턴 물 망 함 는 고 로 무 의 환 일 이 라
함 이 요 또 환 무덤 에 제 스 함 은 부모 의 게 효 도

흠이 아니요 무덤을 옮겨 장사 하야 부모의 회
골을 옮기는 거슨 조그 복을 구함이요 제물을
풍비 흉게 갖초아 제스 흠은 효조 - 라 하는 일
흠을 구함이요 또 흠 조손이 유여 할세에 는 제
스를 풍비히지 내고 가난 할세에 는 몸만 가서
성묘 하는 니이 또 흠 죽제스 하는 레 법이 효도
에 유조 흠이 업고 현상 텨하에 상에 관분을 맛
당이 절하고 섬길 거시니 성스와 화복의 권이
다 상에 쇠잇거늘 당신은 상대의 권능으로써
망녕되이 조상의 계돌너 보내 여산소와 신쥬
에 절하야 상대 쇠죄를 조청하니 일노 생각하

먼제스 지내 는 레 절이 일호도 유익 흠이 업는
지라 그러하니 임의 보살은 거 좃거 신줄을 알
고 엿지제스 하는 레 법은 거 좃신줄을 모 르는
노상대의 물법을 범하는 여 러도건을 말습스
엿스 죽 당신 생각에 는 이런 일을 범함이 업는
니 잇가 당직이 알그리하면 나는 큰 죄인이로
다 전인이 왈 당신이 임의스스로 죄 됨을 알진
비맛당이에 수를 의락하야 더욱의 영원할행
벌을 면하게 하시오 그러치 아니면 죽기에 림
하야서는 후회막급이 되리라 당직이 왈 생각
건티에 수쇠서우리 조치보고 천관사름을 구

제쳐하닐가두려호노라전도인이알에수
말씀호샤티고싱호고무거온짐을진사름은
나의게로오라너의를평안호게호야주리라
호섯스니에수는만민의구유시메무론귀
천호고어는곳사름이던지진실노죄를회기
호고의탁호면비록죄가산긔치높고물긔치
김허도났낫치씨브리지못함어업스리니
구유의속죄호시는모음은편벽됨어업스진
지라아자씨는에수의큰공로를힘넘어죄를
속호고령혼을구호야미지안는모음을품지
말기를브라노라당직이알에수를밋고힘넘

음이무슴방척이잇는노전도인이알성정에
닐너스되밋고세례를밧은자는구제함을넘
리라호엿는니라당직이알세례는무엇시노
전도인이알세례는에수를밋어좃고처음으
로교문에드러정도르헿호는결초라에수
그대즈를명호샤온현하에복음을전호고밋
는자는세례를주어사름으로호여곰상대씩
죄를샤호고영성을주시는은총을넘제호고
즈기일함을밋고명을조차세례를밧는자는
죄를샤호고령혼을구원호리라호섯는니라
당직이쿨은티그리후후에는무슨일을호는

노전도인이 왈 세례 받은 후에 는 말과 형실을
반드시예 수도를 조차 굿이 띠되 고상대 와 예
수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인군의 계충성하고
부모의 계효도 하고야 본분을 직히며 사람을 사랑
하기를 몸과 죽이 할야 장려 영원한 복을 구
할기 시요 만일이 도를 행치 아니 하고 부조성
신의 일홈을 공경치 아니 할즉 죄가 더욱 중하
리니 전날의 죄과를 회기 하고 참도를 준행함
이 맛당하니 이 다만 일지금 회기치 아니 하면
사람의 오래 살고 쉬 죽는 거슬 알지 못함에 이
후에 누우쳐도 할수 업스리 이다 당직이 왈 그

티의 말과 죽이 밧드러 행하리 이다 전도인이
왈 나의 말이 금석과 치당연한 말이니 명심할
망하시오 하고 전도인이 작별하고 가니라 이

요축문답발문

척은 서양에 수교전도인이 중국 잇슬세에
중국신도 위하는 사람과 문답한척이니 중
국글노문든척을 조선 사람이 조선글노문
역할기 시라 그글이 비록에 수교의 오묘한
뜻은 아니나 부인너 조라도 알기가 쉽고 또
글이 도가 로마 교와 죽이 예수 화상을 위하
고 십자가를 차는 절초가 업는 거슬 밝히 알

지라 때 더 상 데 의 거 룩 할 도 는 예 수 의 교 1
라 로마 교 도 할 근 본 이 여 늘 었 지 상 데 의 명
령 을 기 스 러 위 피 화 화 상 을 위 하 는 고 때 더
이 칙 의 말 할 것 과 又 처 려 상 려 하 와 기 벽 전
후 로 지 극 히 높 고 지 극 히 크 심 이 하 는 님 할
분 썬 이 여 늘 슬 프 다 사 름 들 이 지 각 이 업 서
썬 티 업 는 우 상 을 위 하 니 상 데 었 지 진 노 하
지 아 니 시 리 요 또 할 하 늘 을 위 하 는 거 술 보
면 단 을 모 고 제 스 하 는 물 건 을 드 리 니 이 는
도 로 허 상 데 를 공 정 처 아 니 함 이 라 상 데 쇠
무 슴 물 건 이 부 족 하 야 드 리 는 제 물 을 흠 향

하 시 리 요 성 정 에 날 너 스 되 맛 당 이 모 음 과
썬 과 정 성 을 다 하 야 너 를 맛 혼 신 을 섬 기 라
하 였 스 니 나 를 맛 혼 이 는 하 는 님 이 시 니 모
음 과 썬 과 정 성 이 곳 제 스 하 는 물 건 이 라 그
다 하 고 극 진 이 하 는 법 은 하 는 님 의 도 를 좇
고 예 수 를 밋 는 거 시 니 이 말 이 성 정 에 다 있
는 고 로 다 시 장 황 이 론 난 하 지 안 커 니 와 이
칙 의 문 답 이 등 방 모 든 나 라 공 속 병 통 에 적
당 할 고 로 이 에 초 선 언 문 으 로 번 역 하 노 라
때 더 국 중 일 본 에 도 허 망 할 일 이 만 커 니 와
우 리 나 라 이 더 욱 심 하 야 섬 기 는 우 상 이 무

수할지라 나라집으로 말하면 풍요사직문
묘외에 또 환판대성황토디지신이며 스스
집으로 말하면 조상외에 부처와 보살
파산신과 룡신과 로인성과 철성과 데석과
조왕을 섬길 뿐이 아니라 나무와 돌에도 위
하며 비암과 독겁이와 죽저비를 업이라 하
야 위하고 처성하느니라 그러므로 무당과 관
슈가 세상을 미혹하고 박성을 속여 돈과 지
물을 빼앗아 서가니 일년에 쓰는 거시 절반은
이거스로 허비하는지라 상대엇지 그포진
편물함을 위하하지 아니하리요 또 환삼

신이 사름을 도와서 심산하게 한다 하느니 이
는 더욱 상대의 일움을 공정치 아니함이요
하늘아바니 큰 은혜를 베풀음이요 이희들
이역질할새에 노역질귀신이 잇다 하야 미
일치성하고 약을 쓰지 아니하야 열의아함
을 죽이니 아지 못거라 종두는 사름이 역신
을 청하야 오는 거시 나이 못환무식환일을
행하야 상대의 명령을 범하고 인명을 상하
니 그 죄가 엇지 중하지 아니리요 파연한심
하고 민망하고 다우리나라 사름들 도귀로
듯고 눈으로 보거나 와 부쳐 보살과 판공을

비방하고 다만 상대만 섬기는 처양 각국은
현하에 나라이 부하고 비성이 강하니 엇지
교주 고슬 노본국 풍속만 준행하는 노셔양
사름은 학문업고 경험업서 분명치 아니 할
일을 행치 아니 하니 오브라 건대 조세히 강
구하고 김히 생각하야 상대를 공경하고 예
수를 밋어 영원할 복을 예비하야 라 무지 할
사름의 말이 로마교하는 사름은 사름의 눈
을 썩여 약으로 먹어 환장이 되고 그 칙을 보
면 요술을 행할 다 하니 비록 로마교가 그리
시도 교와 다르나 그런 일을 행하면 이 귀화

할 세상에 용납하지요 예수교 칙은 구약과
신약이라 이는 곳 성경이니 다른 비결과 진
언과 혼거지 아니요 대 확지도 혼거지 때
더이 번역할 칙을 인하야 성경을 보고 믿음
을 들너 도를 향하는 사름이 만하면 번역한
사름의 성광도 적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대
씩 들너 보내리니 천만 번 브라는 니다
아멘

주강성일천팔백구십오년
대조선기국오백사년을미
경성정동비지학당간인